

2학기부터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

도내 전체 초등학교·특수학교까지 늘봄학교 확대 도교육청, 각 학교 상황·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 기간제교사 신규 채용 없이 실무 인력 11명만 배치

다가오는 2학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초1 대상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된다. 2학기 늘봄학교는 방과후·돌봄·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가운데 학교별로 수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유형을 다양화했다. 기간제교사 신규 채용은 없으며, 실무 인력에 대한 단기 채용이 이뤄져 필요한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2학기 늘봄학교 운영의 골자는 각 학교의 수요에 따라 운영 유형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걸맞춰 인력 배치 역시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상반기와 달리 기간제교사 신규 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늘봄학교 운영이 각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맞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할 필요 없이 (돌봄) 대기 인원에 대한 수요 해소가 가능했다는 의견을 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올해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초등 돌봄·방과후학교와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제주의 경우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과 방과후학교 확대로 늘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2학기 늘봄학교를 신규 시행하는 60개교를 대상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묻는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희망"을 응답한 학교 수가 50개교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2학기 늘봄학교는 ▷유형1=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유형2=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유형3=초1 맞춤형 프로그램반+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등 3가지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 2학기에는 기간제교사 신규 채용은 이뤄지지 않으며 실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만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2학기 총 13개교에 11명을 신규 채용하며, 실무 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필요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운영 공간은 기존과 같이 전용 및 겸용교실을 활용한다. 도교육청은 겸용교실 활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학년 연구실을 확충하고, 특별실·도서관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교실을 겸용교실로 개방한 교원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지급하거나 학급 운영비 또는 학년 연구실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신임 제주해경청장에 박상춘 경무관

신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박상춘(56) 경무관이 임명돼 2일 취임했다. 박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1987년 해경으로 입문해 통영해경서장, 해경청 수색구조과장·경비과장, 인천해경서장 등을 역임했다. 박 청장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취임사를 통해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철저한 훈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해 달라"며 "소통과 화합으로 단결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한편, 전임 한상철 청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민기자

제주해양경찰서장 지국현 총경 취임

제30대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 지국현 총경이 취임했다.

신임 지서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 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도 간부후보로 입문해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서귀포서 5002함장 등 보직을



지국현 제주해경서장

두루 거쳤다. 지 서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든 직원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직장 내 괴롭힘 저지른 제주시 체육회장 사퇴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회견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민주일반노조 제주본부는 2일 오전 제주시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갑질이 인정한 제주시 체육회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는 제주시체육회 이병철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진정을 넣은 여러가지 갑질 사례에 대해 대부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로 밝혀진 갑질 사례는 12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체육회 조직 운영 정상화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조직 내 뿌리내리고 있는 갑질 문화를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병철 회장은 갑질 피해 노동자와 도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활짝 핀 참나리꽃 2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안가에 참나리 꽃이 만개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 특색과목’ 개설 운영 교과·범교과 영역 포괄 지역·학교실정 맞게 개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 위주의 2023년 이후 지정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특색과목이란 제주형 자율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

해 교과와 범교과 영역을 포괄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범위와 계열성을 갖추어 개설하는 과목을 일컫는다.

2023년 이후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과목 개설 준비 단계를 거쳐 늦어도 내년부터 학교

특색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그중 금약초, 하도초, 송당초는 기존 운영하던 학교 특색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학교특색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교실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특색과목 개설·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치매환자 실종 예방·대응 훈련 10일 제주시 서문공설시장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제주시 서문공설시장에서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6개소), 경찰 등 합동으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실종 치매환자 발견 시 적절한 대처방법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에는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상인회와 제주동부경찰서, 의용소방대가 참여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백금탁기자

문화재 표본 조사 중 2명 매몰... 긴급 구조

1명 병원서 자발순환 회복

제주시 구좌읍에서 토사 붕괴사고가 발생해 문화재 표본을 조사하고 있던 관계자 2명이 매몰됐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5분쯤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에서 토사가 붕괴되며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119는 최초 신고 접수 후 15분 만인 오후 1시40분쯤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구급대 현장 도착 전 이미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주고고학연구소 소속 관계자로 문화재 표본 조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 당시 심장지 상태였던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자발순환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기자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읍 자생단체 일동

애월읍 체육회장 김기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박철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성익

이장단협의회장 문동원
새마을부녀회장 강미숙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안철수

주민자치위원장 고정학
바르게살기위원장 정보현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김백석

대한노인회애월읍분회장 박정심
연합청년회장 하명종
장애인지원협의회장 고희열